

일본군 '위안부'의 생활실태

1993년 12월 18일

윤 정 옥

I. 들어가며

일본군 '위안부'¹⁾ 제도는 당시의 일본이라는 지배국과 조선이라는 피지배국, 그리고 지배적 위치에 있던 남성과 피지배적 위치에 있던 여성의 관계에서 생겨난 제도이다. 이 두가지 요소의 지배는 일본의 공창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생겨나기는 했으나 공창제도와는 다른 제도로 변형해 나갔다. 지금 여기에서는 시간 관계상 이 문제를 여성학적 입장에서 검토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의 관심사인 한·일관계의 문제로만 검토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군위안부 증언집 1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에 실린 19명의 증언과 제 2집에 실린 12명의 증언, 즉 31명의 증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그동안 한국 정부에 신고한 100여명의 증언도 참고로 한 점을 밝힌다. 이 정부자료는 아직 비공개를 요하기 때문에 인체에 부치지는 않았다.

II. 위안소에서 생활실태

1. 연행 당시 결혼 여부

미 혼	30*
기 혼	0
이 혼	1
계	31

*서류상으로만 결혼한 경우 하나는 미혼으로 취급했다.

2. 머리모양

부산에서 단발	1
부산미장원에서 단발	1
대구미장원에서 단발	1
중간지점에서 단발	2
일본에서 단발	1
배 안에서 단발	1
위안소에서 단발	21
본시 짧은 머리	2
계	31

1. 일본군 '위안부'의 표기에서 이하 정대협에서는 위안부에 대해서 '위안부' 안에 넣어서 소위 위안부라고 표기하고 정하였으나 본고에서 "가 빠지게 되었음을 양해바란다.

3. 일본이름으로 불림

일본 이름	29
바꾸지않음	1*
언급없음	1**
계	31

*'용녀'를 일본 발음으로 '요조'라고 불리웠다.

**남의 집 살이 할 때 주인이 지어줌

4. 경영인(관리인)

일본인(남)	10
일본인(여)	3
조선인(남)	3
조선인(여)	3
조선인남녀	2
일본인부부	2
조선인부부	1
군대	6
언급없음	1
계	31

5. 위안소에서 입은 옷

- 1) 양복 윗도리와 치마
- 2) 몸매와 윗도리
- 3) 군인양말, 모자, 까만 운동화, 누비외투, 누비바지, 운동복
- 4) 일본 기모노, 하오리
- 5) 일본 군인이 입다 버린 옷
- 6) 중국인이 버리고 간 옷
- 7) 한복
- 8) 가지고 간 현 한복

6. 생리용품과 화장품

생리습 배급, 나중에는 배급이 끊겼다. 남이 뺏 것을 훔쳐 쓰기도 했다.
 군인 각반 해져 버린 것을 빨아 쓰기도 했다. 들키면 재수없다고 맞았다.
 화장품:유곽형에서는 강제로 안기고 수입에서 뺏다.

7. 위안소 소재지

중국	18
대만	5
파라오	2
미얀마	2
라바울	2
일본	2
조선	2
싱카폴	1
인도네시아	3
마닐라	1

위안소를 옮긴 경우가 있어 한 사람의 위안소 소재지가 2, 3 곳 된 경우가 있음

위안소옮김		7
부대따라 이동		9

8. 위안소의 형질

유곽형	12
군대직속	11
절충	4
언급없음	4
계	31

9. 위안소와 부대와의 거리

부대 안	9
부대 옆	8
부대 근처	12
언급없음	2
계	31

가장 기억에 남는 위안소를 택했음. 이하 같음.

10. '위안부'의 거처와 '위안실'

다른 방	3
같은 방	28
계	31

11. 외출 여부

검진갈때가 유일한외출	2
거의 못함	7
한달 1-2회 집단 외출	5
경영인과 간혹	1
자유롭지 못하나가능	3
비교적자유	2
언급없음	10
계	31

어떤 경우든지 허가가 있어야 가능했음.

12. 식사

밥 된장국 단무지	5
잘 먹음	3
밥, 국 2-3반찬	9
너무 나쁨	3
때로주먹밥	3
때로 밀죽	1
언급없음	7
계	31*

* 이중 1인은 쌀이 귀해서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말하고,

또 1인은 하루 3끼를 먹었으나 양이 적어 항상 배가 고팠다고 증언하고 있다.

하루에 두끼 주는 위안소도 두 곳 있었다. 문제는 세끼를 주어도 긴밤을 자고 가는 장교에게 시달리고 나면 밥을 먹는 것보다는 누워서 쉬고 싶어진다고 한다. 또는 군인을 받기 싫어서 피병을 하느라 밥을 안먹기도 했다는 것이다.

라바울 동 태평양에 있는 섬에서는 공급배가 폭격을 맞거나 어뢰에 깨지면 다음 배가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먹을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그래서 담배 배급 받은 것을 원주민에게 주고서 바나나나 파파야를 얻어 먹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전쟁 말기에 들어가 공급을 못 받을때 쌀에 찻묵을 섞어 지은 밥을 맨 소금물과 먹었다.

대개가 안남미밥, 된장국, 단무지, 어쩌다 우엉조림을 주고 국경일에는 돼지고기 장조림이 나왔다고 한다.

태평양의 섬에서는 물이 귀해 항상 목이 말라 애쓴 기억을 하고 있다.

13. 잡일

1) 취사

본 인	4
고용인	10
군대에서 갖다줌	11 (2인은 후 에 고용인 이 취사)
언급없음	6
계	31

2) 청소와 빨래

대부분 본인들이 했는데, 한 위안소에서는 경영인의 방까지 위안부가 해야했다.

14. 탈출 기도

	본인	동료
도주 성공	7*	2**
도주 실패	3	1

*군인이 도와준 경우가 3인이었다. 1인은 친한 군인이, 1인은 단골장교가, 1인은 일본 헌병이 러시아 군인들이 다음날 들이닥친다고 알려줘서 가능하였다.

나머지 2인중 1인은 동료와 빨래하던 중 일본군인에게 구타당하여 버려진 뒤 의식을 회복해 탈출한 경우이고, 1인은 조선인이 탈출시켜준 경우이다.

** 1인은 현 피해자와 같이 탈출한 것이다.

1인은 친한 동료로 군인이 빛을 갇아줘서 귀향한 경우이다.

15. 자살 기도

	본인	동료
자살 기도	6	1
자살 성공		5*
자살 실패	1	5**

**의 경우 1사대는 증언자와 그의 동료들이 일본군에게 처음으로 강간당한 후 중국인 군수에게 말이 안 통하는 손짓, 발짓으로 자살할 수 있는 약(술)을 사서 집단으로 마신 후 며칠 동안 혼수상태에 빠진 경우이다

*성공 사례중 1사대는 병에 걸려 고통을 참지 못하고 천장에 목을 매달어 자살한 경우이

고. 또 1 사례는 매독에 걸려 자살한 경우이다. 나머지 1 사례는 귀환 도중 임신 3개월의 위안부가 두만강에 몸을 던진 경우이다.

16. 성병 감염

본인	동료
7	10

17. 임신, 낙태, 출산

	본인	동료
임신	2	5
낙태		5
출산		4

18. 수입

	수 입	비 고
1	위안소에서 1개월 30엔	옷, 화장품, 거울값으로 제하면 손에 들어오는 돈은 없었음.
	병원 1개월 50전	
1	경영인이 조금 줌	
	귀국선을 타기 직전 저금통장을 내어 줌	귀국선이 어뢰에 맞아 파선되어 저금통장을 잃어버림
2	경영인에게 용돈받음	
나머지	팁이나 선물이외에는 돈 받은 일 없음	

1. 전표를 갖다주고 5원-10원을 받은 경우
2. 한달에 한번 군인 받은 수에 따라 돈 2-3원을 받은 경우가 있다.
3. 한 '위안부'는 처음에 받은 돈의 1할을 받다가 (병사 1원 50전, 하사관 2원, 장교 10원) 나중에는 일본군의 지시하에 받은 돈의 6할을 받아 저금했다.

19. 동료 사망

동료 15명 중	4인이 팔라리아로 사망
동료 6명 중	3명 사망
동료 6명 중	2명 사망
동료 5명 중	3명 사망
동료 50명 중*	
미상	귀국선에서 폭격 맞음
미상	수송도중 폭격 맞음
미상	파라오 위안소에서 폭격 맞음

*처음 귀국선을 타고 나오다 배가 어뢰에 맞아 15명이 살아남았다. 15명이 다시 라바울로 돌아갔다. 다시 출발했는데 또 다시 어뢰에 맞아 7명이 살아남았다. 이 중에서 한국에 나온 사람은 2명 뿐이라고 한다.

20. 본인이 있던 위안소의 위안부 수

5명이내	1
10명이내	1
15명이상	2
20명	8
22명	1
30명	6
30명-40명	1
40명	1
50명	4
언급없음	6
계	31

위의 도표중에는 남깁 근처 위안소에 일본인 위안부 약간명이 있었고 상해위안소에는 중국인 위안부, 일본인 위안부가 각각 두어명 있었다.

이외에 미얀마 위안소에서는 동남아시아인 위안부가 있었다.

패전후 스마트라지역 수용소에 수용된 위안부는 500명 정도라고 한다.

21. 콘돔 사용

반 불착용	4
전원 사용	21
되는대로	2
전혀 사용 안함	1
언급없음	3
계	31

라바을 위안소에서는 콘돔을 반드시 끼워주어야 했고, 중국의 위안소에서는 끼워달라면 끼워준 곳이 많다. 콘돔을 끼기 싫어하는 군인들은 어짜피 죽을 몸이니 성병을 옮으면 선풒로 받아가겠다고 말했다는 경우도 있다.

22. 편지, 저금, 송금 관련

집에 편지 가능: 3년 지나서 5명이 가능했다.

저금: 3명(박옥련, 문옥주, 하점연)이 통장을 가지고 있었고

집에 송금을 한 경우는 4명이 있다.

23. 일일 평균 상대 군인수

선택	1
4.5명	2
7.8명	3
10명	2
15명	5
20명	3
25명	6
30명	2
35명	4
45명	1
많다	1
언급 없음	1
계	31

24. 술

군인에게 술을 팝	4
위안부들이 마심	3

25. 마약

아편, 마약, 주사 사용	3
---------------	---

일본인 위안부는 더 많이 아편을 복용했다고 증언한다.
 중국의 한 위안소에 있던 전 위안부는 동료가 아편에 중독되어 일본군인이 주사를 놔 주었다. 이 사실을 군대에서 알고 주사를 놔준 군인을 총살했다고 한다.
 동료가 아편을 권하셔서 피우다가 중독이 되었는데 그 동료가 죽자 정신을 차려 아편을 끊고 술을 대신 마시게 된 일도 있다.

26. 현지에서 위안 외에 해야 했던 일

현지에서의 일	숫 자	비 고
보국구당이 파기, 폭탄 수송, 군인 치료	1	
군인 황송, 환영, 군복 빨래, 소방 훈련 총쏘는 연습, 창꽂는 연습,	1	쉬는 날에는 일본군 무덤을 벌초하고 향 꽃고 합장
붕대 감는 연습	1	
군인 뒷치닥거리, 부상병 치료	1	
부대에서 밥, 빨래	1	
병원에서 간호, 빨래	3	
군사 훈련	2	까만 몸매 입고 국방부인회라는 어깨 띠를 두르고 모자를 썼는데 일본인 위안부도 일반인도 있었음.
1주 3-4회 조회	2	위안소 마당에서 황국신미서사 외우고 국가를 부름.
방공 연습	1	

풀을 뺨	1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국방색 군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풀을 뺨. 뺨 것을 도로로 가지고 나와 불을 질러 연기냄
굴속에서 노래부르고 춤을 추고 바이올린을 켜.	1	군인들은 술 마시고 난장판을 벌임. 바이올린이 8개 있었는데 가르쳐줄 때 잘못되면 구타당함.
국경일 행사	1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고 군가, 아리랑을 노래함. (장교와 위안부만)
일본말 배움	2	
일본인 요리집에 불려가 장교들 술시중.	1	이런 때에 뽀히는 것을 명예로 생각함

27. 구타

구타당함	27
고문	1
칼(꼬챙이)로 찔림	2
고문이나 구타당한 일 없음	1

배고파하는 동료에게 밥을 덜어주면 준 사람이나 받아먹은 사람이나 구타당했고, 일본말 못한다고 구타당했다. 조선말을 하면, 욕하거나 모의하는 줄 알고 때리고, 조선 노래를 불러도 매를 맞았다.

성병에 자주 걸린다고 매질하고, 처음 위안소에 들어가 반항했을때는 정도의 차는 있겠으나 거의 다 구타당하였다.

칼을 다다미에 꽂고 위협적으로 난폭하게 성행위를 하고,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눈치를 보이면 팔과 다리를 찔렀다.

너무 괴롭혀서 발로 찼더니 옷을 찢어 발가벗기고 구타하고도 성이 차지않는지, 칼을 들이댄 후, 벌정개 단 불 쏘시개를 가져와 겨드랑이를 지졌다. 그렇게 화상을 입고도 군인을 받아야 했다. 상처는 3달 갔다고 한다.

위안실에 안 들어 간다고 전기고문을 하고, 군사훈련때 배고픈 상태에서 파라오의 햇볕에 못이겨 쓰러지면 구타당했다. 성행위때 이상한 짓을 거절하거나 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누워 있으면 때리고 발길질을 했다.

만신창이가 되어 송장처럼 누워 있는데 어떤 군인이 덤벼들려다 하체를 보고 못같은 뽀죽한 도구로 아래를 찔렀다. 그 상처가 굼았다. 그리고도 군인을 받아야 했다.

반기지 않는다고 아랫배를 발로 차 배가 부어 결국 수술을 해야 했다. 가슴이 작다고 젖꼭지를 잡아뜯기도 하고 질속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여 반항하자 때리고, 온몸을 물어 뜯는가 하면 생리인 줄 모르고 군인을 받아 뺨을 맞은 경우도 있다.

주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구타당하였다.

28. 그외 고통스러웠던 일

조센씨 조센징이라 불리운 일	
어머니생각과 집 생각이 날때	위안부는 집생각으로 정신착란을 일으켰다.
아이가 보고싶을때	
어머니 반대를 무릎쓰고 돈벌 려고 지망한 사실	
폭격속에 피난속에서 있었던 일	폭격이 시작되어 도망다닐때 독이 있다고 원주민이 먹지않는 냇가의 달팽이를 생것으로 먹었다. 도마뱀, 쥐도 생으로 먹었다. 밤중에 모르고 사람의 피로 밥을 지었다. 날이 밝자 이 사실을 알고 동료들과 먹을 것인가 안먹을 것인가 의논한 결과 먹기로 했다. 이 고통을 함께 한 6명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다. 이 와중에서도 강간당했다. 그때 어떤 군인이 입술을 깨물어 지금도 자국이 남아있다.
군인에게 당하고 몸을 추스리지 못할 때	군인이 부르면 담요를 말아서 끌고 가는 대로 야산에 갔다. 그곳에서 계속 당했다. 끝이나면 설 수도 없다. 군인이 잡아 끌다시피 해서 천막으로 데리고 왔다. 그 그때의 비참한 느낌이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토요일 오는 것이 죽기보다 무서웠다.
도망하다 잡혀서 총개 머리판으로 맞고도 군 인을 받아야 했을 때	궁둥이를 총개머리판으로 세번 맞고 입으로 피를 토하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리고 바로 군인을 받아야 했다. 치료를 전혀 안 받은 상태여서 상처가 굼기 시작했다. 열이 뿔뿔 났다. 똑바로 눕지도 못했다. 그래도 군인들이 들어왔다. 드디어 병원에서 살을 도려내고 30일을 쉬었다. 요즘도 오래 서있거나 걷지 못한다.

중국 동북부에 있던 한 위안부는 대소변을 군인이 가져다주는 쟁통으로 보아야해서 매일 대소변을 참아야 하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29. 고마웠던 군인

애기만 하고 앉았다간 경우	5	조선 군인들(4), 일본 장교(1)
결혼하자고 한 경우	5	한 일본은 일본에 가서 같이 살 때 위안부였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까지 함.

건강에 관심가져 준 경우	6	
친절하게 속 마음을 애기한 경우	4	전투에 나가 안 돌아옴
귀국하게 알선해 준 경우	4	조선인 군인토목기술자가 병원선 타고 간호하며 귀국할 수 있게 알선
의지가 된 경우	1	위안소 아주머니

태평양 전쟁 전에 귀국시키고 계속 편지 왕래한 경우(상대는 높은 장교)가 있는 가 하면 결혼하자고 한 군인들도 패전했을 때 전부 자취를 감추었다. 어떤 군인들은 울기도 하고 천황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한가지 지적해야 할 점은 31명중 친절한 군인이 본인도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2명 밖에 없다. 나머지는 전부 수동적이었다. 그 중 한 사람은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도 끝까지 믿지 못했다고 한다.

III. 맺으며

지금까지 검토해 본 바와 같이 끌려간 위안부들은 이름을 빼앗겼고, 말을 빼앗겼다. 이것은 내선일체(內鮮一體) 체제에 들어가면서 創氏改名을 하고 國語常用이라고 해서 일본말 쓰기를 강요한 정책을 생각케 한다. 본인들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하고 '하루코, 아이코' 등 되는 대로 이름을 지어 이름패를 방 출입구에 붙였다.

또한 대부분의 '위안부'들이 학교에 다닌 일이 없고 일본말을 전혀 할줄 모르는데 조선말 사용을 금지했다.

또 위안부들은 당시 조선에서 처녀들의 상징이었던 긴머리를 잘랐다. 男尊女卑의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성이 천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다른 집에 가서 그 집의 代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하는 몸이라는 점에서 나이가 찬 미혼녀는 그 여성의 집에서나 장차 그 여성을 맞을 시가에서 귀한 존재였다. 그런 뜻이 있는 미혼녀를 끌어가 강간한다는 사실은 그 여성의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오라버니를 끌어가 구타하는 일보다 그 집에 대해 더 큰 모욕이 되는 일이다. 조선 민족에 가할 수 있는 가장 뼈에 사무치는 모욕이라 하겠다.

다음은 일본 위안부와 차별 대우라 할 수 있다. 일본 위안부는 직업적인 여성이기는 했으나 원칙적으로 강제가 아니었다. 누구나 선금을 받았고, 돈을 갚으면 위안부를 면할 수 있었다. 현지에서도 원칙적으로 장교 상대였다. 반면에 '센징' '센삐'라고 부르며 업신여기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조선 위안부들은 "우리도 <텐노(天皇)헤이카>의 국민이다. 너무 센징 센징 하지마라." 고 소리질렀더니 '텐노헤이카'라는 말에 기겁을 하고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다는 웃지 못할 말이 있다. 공식적으로는 '천황이 적자(赤子)에게 내린 하사품(下賜品)'이었던 이들은 실제로 아소 데쓰오 군의가 말한 바와 같이 "위생적인 공중 변소"였다. 정말로 정액받이였다. 말도 잘 못하는 동물이요,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는 군수품이었다.

위안소는 군대의 재원(財源)중 하나요 관리인이나 경영인의 노다지였다. 따라서 희생되는 측은 '위안부'들이었다. 군인을 받는 수에 따라 별을 달아주어 위안부들 사이에 계급을 만들어 경쟁을 시킨 위안소, 상을 주거나 매질을 해서 군인을 많이 받게 하는 위안소가 있는가 하면, 막대 그래프로 각 위안부의 성적을 나타내서 성적 나쁜 위안부에게 압력을 가하고 구타를 한 위안소도 있었다.

군위안부들은 좁은 공간에 갇혀서 영양실조 상태에서 심신이 발길로 차이는 말 그대로

의 성노예 노릇였다. 무슨 병에 걸리는 심하면 고치지 않고 버려두었다. 고통을 참지못해 마약을 복용하거나 주사 맞은 위안부가 상당수 있다. 이번에 정부에 신고한 사람중에는 5명이 불임조치를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본인들의 주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알아 보려고 한다.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고 나서 취한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1920년의 이른 왕세자와 나시모토노미야 (梨本宮) 方子 여사와의 결혼이었다. 이것은 '일시동인(一視同仁)' '내선융화(內鮮融和)'를 내건 정책의 본보기였다. 방자여사는 '히로히토'의 신부 후보자였는데 황실의 전의에게서 임신불가능의 진단을 받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다음해인 1921년에는 '내선인통혼법안(內鮮人通婚法案)'이 성립했다. 스즈키 유우코(鈴木裕子)의 <중군위안부 '내선결혼'>(미래사 1992년 발행)의 75쪽을 보면 1912년 116쌍이었던 '내선결혼'이 1920년에는 85쌍이 되었다가 1925년에는 404쌍으로 는다. 일본측에서의 '반도인' 멸시와 조선측의 강한 가족 연대감을 고려한다면 5년간에 85쌍에서 404쌍으로의 증가는 대단한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내선결혼'에 있어 많은 경우가 일본측은 여성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본도 조선의 자손도 남성의 혈통을 따랐다는 점이다. 이런 정책을 써온 일본은 1945년 패전에 즈음해서 집단학살과 자결을 강요하였다. 1990년 71세였던 전 일본군인 가와모토 유이치(川本友一)의 증언에 의하면 "조선의 젊은 여자는 모조리 굶어모아서 위안부를 만들어 조선 민족의 씨를 절멸(絶滅)시키는 거다."라고 동료들끼리 말했다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창씨개명과 일본말 강요로 민족성을 말살하고, 이른 왕세자를 임신불가능의 진단을 받은 방자여사와 강제결혼시킴으로써 조선 왕가로 상징되는 조선민족 소멸을 계획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은 조선의 젊은 남성은 물론 중년 남성까지 끌어갔다. 조선남성과 여성은 현재에서 사람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학대해도 되는 물건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받은 자존심의 짓밟힘과 차별대우는 '할머니'들에게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한'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을 끌어갔다. 일본의 조선침략정책은 군 '위안부' 정책에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군위안부의 비극, 민족의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비정부단체의 하나인 ICJ(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의 두 여성 변호사가 위안부를 조사하러 필리핀,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벌였다. 북한에 가기 위해 한국을 떠나면서 하는 말이 필리핀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의 위안부들에게는 위안부 생활이 오늘의 것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문화와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 다른데서 오는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달리 조선의 군위안부 정책은 책상 위에서 계획되고 입안된 전쟁범죄였다. 그만큼 빈틈이 없고 잔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희생자들은 육체적으로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파괴된 경우가 적지않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가하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파괴된 것이라고나 할까.

또 한가지 지적할 사실은 이 비극이 위안부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代로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한 위안부가 고민 끝에 신고를 하고 나니 작은 아들 내외가 이에 부끄러워 하자 큰 아들은 울면서 '어머니, 참 용하세요'하며 위로를 하였다. 이에 작은 아들 내외는 폭 기가 꺾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인간관계에서 뿐 아니라 위안부였다는 사실의 피해는 육체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 위안부의 아들은 택시 운전기사로 40대이다. 그 아들이 근자에 와서 정신착란을 일으킨 것이다. 어머니의 매독균이 살아있어서 아들에게 유전되어 40년이 지나 뇌를 침해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기억하고 싶은 사실은 아직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과 전쟁이 끝나기 전에 혹은 전쟁이 끝난 후에라도 외국에서 죽은 위안부들이다. 그들은 이 문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되는줄 모르고 죽은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반도의 가엽슨 처녀들'의 문제로 파악한다면 문제의 핵심을 놓칠 우려가 있다. 이 문제는 조선과 일본,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의 역사를 철저히 파고 내려가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